

# 익산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고령화·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고독사 위험 ↑  
AI 기반 안부 확인·우체국 집배원 방문 서비스 도입 등

익산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특히,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간 협력을 확대하고 AI·우편 서비스를 활용한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익산시는 위기가구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공 자원과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한편,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우리 마을 행복지킴이' 사업을 통해 3670지구 국제로타리클럽 익산지역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주택 신축(러브하우스) △수해 피해 가구 겨울 이불 지원 △다자녀 가정을 위한 불박이장·2층 침대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이 추진됐다.

시는 앞으로도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로 발굴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빠르게 찾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익산시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부 확인 서비스와 우체국 방문 서비스도 도입한다.

시는 읍·면·동장 책임제를 중심으로 복지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과 독거노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시는 이렇게 찾아낸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클로바 케어콜'과 '안부살림 우편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클로바 케어콜'은 네이버의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를 활용한 자동 안부 확인 서비스로,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건강 상태와 생활 상황을 점검한다. 식사 여부나 수면의 질, 건강 상태 등 일상적 안부를 묻는 식이다.

인공지능이 통화 내용을 기억해 맞춤형 대화를 제공할 수 있어, 정서적 교감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부살림 우편서비스'는 우체국 집배원이 월 2회 사회적 고립가구를 방문해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마련한 생필품(물티슈, 마스크, 라면 등)을 전달하고, 대상자의 생활 상태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행정과 협력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익산우체국과 손을 맞잡고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희 복지교육국장은 "익산시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 시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출산·출연 기관과의 데이터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에너지 자립화와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을 위한 군산 농공단지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3월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 ‘군산 농공단지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서수농공단지 28개 입주기업 대상, 年 2억원 에너지 절감 목표

에너지 자립화와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을 위한 군산 농공단지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3월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농공단지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술도입 모델’ 사업은 2023년 농식품부가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 사업에 선정된 군산시는 노후된 서수농공단지 에너지 관리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서수농공단지지는 착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농공단지이자 식료품 분야에 전기 및 가스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았다. 시는 2024년까지 24억5,000만 원을 투자해 사업을 완료했다. 이후 2025년 3월까지 시스템을 시범운영 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시스템 본격 가동 후에는 서수농공단지 28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통해 절감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한 분산 전원 구축 및 에너지 절감 전력 제어장치를 통해 연간 총 7%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번 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연간 에너지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에너지 절감을 통해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서수농공단지는 군산시 농공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산업단지로 농공단지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술도입 사업을 통한 에너지 절감으로 농공단지 활성화와 친환경 가치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시는 앞으로도 사업이 필요한 산업단지 추가 발굴을 통해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경봉 의원 '군산시 암관리·암환자 지원 조례안'

김경식 의원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 등 총 5건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들이 19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먼저,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안', 김경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켰다.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암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암 예방 홍보사업 및 암검진사업에 관한 사항,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김경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데이



한경봉 의원



김경식 의원



설경민 의원



최창호 의원



이한세 의원

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행계획 수립, 책임관 임명 및 실무협의회, 데이터관리시스템 및 활용기반 구축·운영, 데이터의 조사 및 수집·관리, 데이터기반행

정 활성화 및 데이터기반 행정 혁신, 시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출산·출연 기관과의 데이터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물심의위원회 신설에 따른 박물관운영위원회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과 유물 기증 심의를 위한 유물심의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이다. 더불어 관련 법률 명칭 개정에 따른 명칭 재정비가 포함됐다.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는 등록심사에 관한 규정신설, 심사기준 관련 규정의 추가,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사유 등을 규정한다.

같은 날,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이한세 의원의 발의한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입주자 결정, 입주보증금, 위원회 구성·운영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군산시 직접 운영 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 ‘군산시 화학물질 관리지도’ 앱 출시

유해화학물질 정보·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요령 등 소개

군산시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 본격적인 '군산시 화학물질 관리지도' 앱 홍보에 나섰다.

'군산시 화학물질 관리지도' 앱은 위치를 기반한 모바일 앱으로 202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시는 앱을 통해 △내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장소 등 각종 현황 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신뢰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화학 사고가 발생하면 팝업을 통해 사고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대피장소 실행 버튼을 누르면 현재 위치에서 사고 발생지점과 풍향 등을 고려한 이동 경로 제시와 행동 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앱을 이용하고 싶은 시민은 핸드폰 앱(플레이) 스토어에서 '군산시 화학물질 관리지도'를 검색하여 설치하면 된다. 시는 앱에서 구현되는 군산시



화학물질 관리지도를 관련 누리집으로도(<http://gunsanchemmap.go.kr/>) 운영하면서 다양한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는 20일부터 2월 말까지 앱을 홍보하는 기간으로 정해, 앱 설치와 회원에 가입한 선착순 30명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기후환경과 김현수 과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기업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화학 사고로부터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익산시, 외국인정책 실무협의회 출범·운영 본격화

익산시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외국인정책 실무협의회'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늘어나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민과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자 외국인정책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영석 부시장과 기획안전국장, 기획예산과장, 정책개발담당관, 사업 담당 계장 등 2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익산시 외국인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지역맞춤형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동력 확보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지역기반 외국인 네트워크 구축 등 4대 전략별 정책과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5년 익산시 외국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영석 부시장은 "외국인 주민과 시민이 상생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외국인정책 종합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원광대 남문 주차장

365일 전면 무료 개방

익산시와 원광대가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익산시는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광 남문주차장이 시민들에게 전면 무료로 개방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방으로 시민들은 남문 주차장 100면을 평일·주말·공휴일 24시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익산시와 원광대학교는 지난해 7월 지역 체육시설 주변 확대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원광대 시민개방형 체육시설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원광대는 지난해 9월부터 동일한 진출입로를 이용하는 경우 교내 주차장을 평일 저녁 3시간(6~9시), 주말·공휴일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극장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장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훈을 주는 곳이다.

